Aug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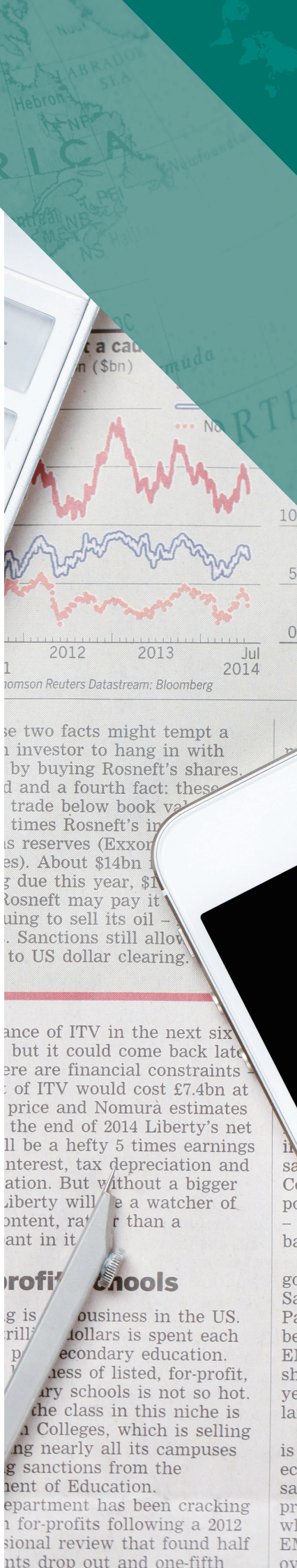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하나은행

Aug
2020



목 차

금리 ---------- 03

달러/원 환율 ---------- 05

엔/원 환율, 유로/원 환율 ---------- 07

하나은행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 리

7월 동향 한국과 미국의 예상을 하회하는 2분기 역성장과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비둘기적 스탠스 등이 하락에 영향

초반,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경기회복 신중론 부각 등에도 대내적 수급상 장기물 공급 확대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 월초,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시행으로 하락 출발 후, 미 고용지표 호조와 미국 경기 회복 신중론 부각 영향에도 장기물 공급 확대 속 상승 전환

- 7월 초반,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상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시행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하락 출발
- 이어, 미 금융시장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신중론이 부각되며 안전자산선호 영향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대내적 장기물 공급 우위 영향과 경제부총리의 금리관련 발언 등으로 상승 전환

중반,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등에도 금통위 비둘기 스탠스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중반, 백신 개발 기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후, 금통위에서의 경기전망 경로 불확실성 시사에 따른 비둘기적 스탠스 반영되며 하락 전환

- 7월 중반,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가 위험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 이후, 금통위에서 금리동결 결정 속에 향후 경기 전망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시사가 비둘기적 스탠스로 인식되며 하락전환, 이후 등락 양상 시현

후반, 한국과 미국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유지 등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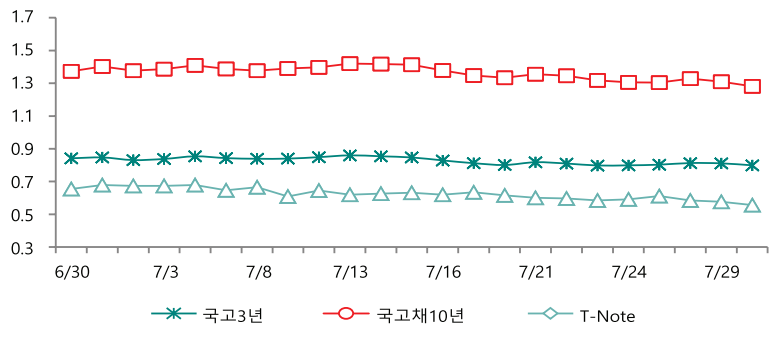
■ 7월 후반, 유럽 경제회복기금 합의에도 한 · 미 2분기 역성장 결과와 연준의 향후 경기 전망 불투명 시각에 따른 비둘기적 스탠스 등으로 하락감

- 유럽경제회복 기금 소식에 따른 글로벌 위험선호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한국과 미국 사상 최저 2분기 역성장 및 중앙은행들의 향후 경기전망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통화완화적 스탠스 시사 등으로 최저치 경신

7월 평균

국고채(3년): 0.83%
국고채(10년): 1.36%
T-Note(10년): 0.62%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8월 전망 유럽, 중국 경제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 요인에도 불구, 국내 경제의 회복 경로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금리하락 예상

평균	2020. 1Q	2020.2Q^F	2020.3Q^F	2020. 4Q^F
국고채(3y, %)	1.09	0.90	0.85	0.80

■ 미국 2분기 역성장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이어지는 국면에서 미 의회의 추가 재정부양 난항과 연준의 장기침체 우려에 따른 통화완화 지속 기조 등이 대외적 하락 요인 작용할 전망

- 2분기 미국 GDP가 역사상 최저인 -32.9%를 기록한 가운데 장기침체를 우려한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가 미국 내외 국채금리 하락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 추가 재정부양책에 대한 민주, 공화당간 합의 난항,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불확실성 증폭 등도 미 국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

미국 2분기 역성장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의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며 이 기간 미 경제 활력이 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적으로도 2분기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1분기보다 성장세가 보다 악화한 가운데 투자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

- 국내 1분기 -1.4%의 역성장 이후 2분기 -3.3%으로 역성장 정도가 보다 커지는 양상 시현
- 여기에 최근 약달러 기조 우위 속 수출이 크게 악화하며 실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경제도 2분기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약달러 속 수출, 투자 등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

■ 연준의 미국 장기침체 우려와 함께 한은도 국내 경기가 올해까지 불확실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완화적 통화 스탠스 유지 속 추가 정책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제 장기침체 우려와 함께 한은도 연내 불확실한 전망 경로를 시사함에 따라 국내외 경기회복력이 빠르지 않을 전망
- 이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기조 유지와 추가 정책 고려가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측면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

8월 국고채(3년) 금리는 0.70%~0.85% 예상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유로존 경제회복 기금 합의의 경기 개선 효과에 따른 위험선호 가능성 · 중국 2분기 성장률의 가파른 회복에 따른 위험선호 요인	· 미 코로나 확산 속 경제 장기침체 우려 · 대내적 하반기까지의 전망 경로 불확실 속 한은의 비둘기적 스탠스 · 주요 중앙은행에 대한 추가 정책 기대

달러/원 환율

7월 동향 **미·중간 안보 이슈에 따른 대치 국면 지속에도 백신 기대감, 유로화 강세, 미 GDP 악화 등에 따른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월 초,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등에도 홍콩 이슈 불확실성과 미국 코로나 증가세 등으로 하락 후 상승 전환

■ 월 초,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미 · 중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 후, 홍콩 보안법 관련 미 · 중 갈등과 미국내 코로나 확산 증가에 상승 전환

- 7월 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 속에 달러 약세 반영되며 하락 출발
- 이어, 홍콩 보안법 이슈에 따른 미 · 중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미국내 코로나 증가세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강화 영향으로 상승 전환

중반, 미·중 주요 증시 낙폭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 후 미 모더나사의 백신개발 기대와 위안화 약세 등의 상존으로 등락 시현

■ 중반, 미국 기술주 상승 동력 약화와 중국 증시 낙폭 확대에 상승 이어지다 백신개발 기대에 크게 하락 후, 위안화 약세에 연동하며 1,200원대 초반 등락

- 중반, 미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력 약화, 중국 증시 하락폭 확대 등이 위험회피심리를 강화하며 소폭 환율 상승
- 이후, 미 모더나사의 백신 3상실험 소식으로 큰 폭 하락 되돌림을 보이다 중국 2분기 성장률 선방 소식에도 미 · 중 갈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연동하며 상승 전환

후반, 미·중 안보 이슈 갈등 대치 국면에도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이 주로 반영되며 1,190원대 초반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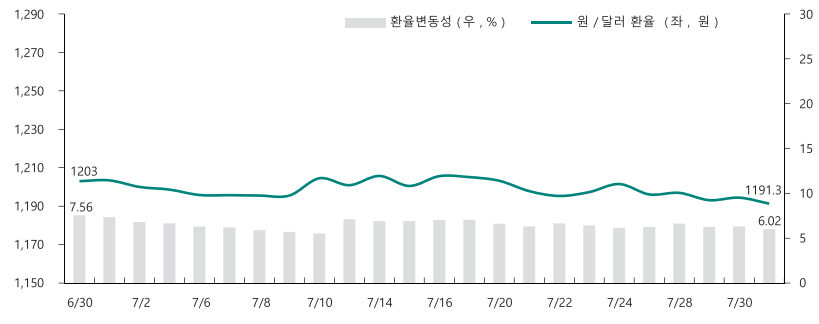
■ 7월 후반, 미 · 중 영사관 폐쇄 등 갈등 심화 요인이 상승 동인으로 작용했으나,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심화 속 2분기 미 GDP 사상 최저치 실현,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등으로 하락 추세 전환하며 마감

- 7월 후반, 미 · 중간 영사관 폐쇄 등 갈등 확대 국면이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유로존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에 따른 유로 강세, 미 2분기 GDP 사상 최악의 결과 속 연준의 비관적 경기 판단에 따른 비둘기적 스탠스 등으로 1,19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환율은 전월보다 11.7원 하락한 1,191.3원으로 마감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98.9원

7월말 달러/원 환율
: 1,191.3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8월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이 유효한 가운데 수출 경제 관련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가능성 등이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

평균	2020. 1Q	2020. 2Q^{F}	2020. 3Q^{F}	2020. 4Q^{F}
달러/원 환율(원)	1,195	1,230	1,210	1,240

■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 이슈, 유로존 경기 회복 모멘텀 강화 등의 영향이 당분간 달러 약세를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

- 유럽 재난복구기금 확대 통과 및 이에 따른 상대적 유로존 경기 개선세, 코로나 진정 등이 유로 강세를 견인하며 달러 약세 지속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백신 개발 이슈는 경제 재개 움직임과 관련한 기대로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임상3상 단계에서의 실패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시점에서는 달러강세 전환 가능성도 상존

백신개발에 대한 성급한 기대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는 측면이 대외적 달러 약세의 주요 동인

■ 미국 2분기 GDP가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연준의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 이에 따른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 지속 가능성이 달러 약세를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

- 2분기 미국 GDP가 -32.9%의 사상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가 최저치로 하락하며 경제에 대한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며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비둘기적 스탠스가 달러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미 의회와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국채발행이 재정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달러 약세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됨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적자 우려가 확대되는 측면은 미국 내부적 달러 약세 요인

■ 예상보다 악화된 국내 GDP 역성장에 따른 수출 경제 관련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등이 최근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큰 폭 개선된 측면은 수출 측면에서 원화 강세 요인이나 첨예해지는 미 · 중간 안보 이슈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 가능성은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대외적 달러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2분기 국내 -3.3% 역성장에 따른 수출 경제 관련 외환당국 경계심리 강화는 환율 1,180원대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8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85원~1,210원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수출 경제 관련 외환당국 경계심리 강화 · 미 · 중 긴장 고조에 따른 위안화 절하 가능성	· 코로나 백신개발 기대에 따른 경제 재개 움직임 · 유로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 달러 약세 · 추가 경기부양 등에 의한 미 재정적자 확대 우려

엔/원 환율

8월 전망 **원화 약세가 약달러 영향을 상쇄함에 따라 엔/원 환율은 높은 수준 유지할 전망. 미·중 긴장 강화시 다소 가파른 상승 가능성도 상존**

달러/엔 평균 환율
: 106.7엔
엔/원 평균 환율
: 1,123.1원

■ (동향) 위험선호와 미 · 중 긴장의 상충으로 107엔대에서 변동하다 월 후반 약달러 영향으로 큰 폭 하락 시현

- 월 초, 코로나 우려 상존하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지표 개선 및 중국 증시 강세 등 위험선호 요인으로 107엔대에서 제한적 변동 시현
- 월 중반, 백신 개발 기대 속 위험선호와 미 · 중 긴장이 상충하며 107엔 전후 등락 시현
- 월 후반, 미 경제성장률 부진과 완화적 통화정책 장기화 전망, 정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약달러 영향으로 104엔 초반까지 하락 후 소폭 반등 마감
- 엔/원 환율은 전반적인 위험선호에도 불구하고 미 · 중 긴장에 따른 원화 약세 영향으로 1,140원까지 상승

엔/원 예상 범위
: 1,115원~1,150원

■ (달러/엔 전망) 약달러와 금융시장 위험선호 영향 이어져 106엔대 전후의 좁은 변동 예상

- 달러/엔 환율은 달러 약세 지속 전망 등 엔화 강세요인과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선호 등 약세요인이 상충함에 따라 제한적 변동 예상. 다만, 미 · 중 마찰 확대 시 안전자산선호 강화에 따른 엔화 강세 가능성도 상존

유로/원 환율

8월 전망 **유로존 정책 모멘텀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8월에도 지속되며 유로/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달러 평균
: 1.1473달러
유로/원 평균
: 1,373.6원

■ (동향)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과 경기부양기금 집행 합의, 전반적인 위험선호 영향으로 유로화 강세 시현

- 월 초, 유로존 및 주요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위험선호가 유로/달러 상승 견인
- 월 중반, EU 공동회복기금 합의에 따른 유로화 강세 강화
- 월 후반, 미국 경기부양적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유로/달러 1.19달러까지 상승
- 유로/원은 유로화 강세 속 미 · 중 긴장에 영향받은 원화 약세 영향으로 1,400원까지 상승

유로/원 예상 범위
: 1,370원~1,450원

■ (유로/달러 전망) 주요국 지표 개선 속 유로존 경기부양 기금 집행 전망 등이 유로 강세 견인하나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

- 위험선호와 EU 경기부양 기금 집행 기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화 추가 강세 예상. 다만, 유로화 고점 인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제한할 전망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0.8월)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한 7월 수출/수입(-10.9%/-11.4%, YoY) 7월 무역수지($3,666M)
2	3 한 7월 마킷 대한민국 PMI 제조업(43.4) 일 7월 외환보유고($1,383.2b) 중 7월 Caixin 제조업 PMI(51.2) 유 7월 Markit 제조업PMI[F] 미 7월 ISM 제조업지수(52.6) 7월 ISM 고용(42.1) 7월 ISM 구매물가지수(51.3) 7월 ISM New Orders(56.4)	4 豪 RBA 한 7월 CPI(0.2% MoM/0.0% YoY) 7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호 RBA 기준금리(0.25%) 유 6월 PPI(-0.6% MoM/-5.0% YoY) 미 6월 내구재 주문[F](7.3%) 6월 제조업 수주(8.0%) Fed's Evans Holds Media Roundtable on the Economic Outlook	5 한 7월 외환보유고($410.75b) 중 7월 Caixin 서비스PMI(58.4) 7월 Caixin 종합PMI(55.7) 유 7월 Markit 서비스/종합PMI[F](55.1/54.8) 6월 소매판매(17.8% MoM, -5.1% YoY) 미 6월 무역수지($-54.6b) 7월 ISM 비제조업지수(57.1)	6 BOE 통화정책회의 한 6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영 BOE 기준금리(0.10%) 독 6월 공장수주(10.4%, MoM/-29.3% YoY) 미 6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43.1) Fed's Kaplan Discusses U.S. Economy at OMFIF Event	7 일 6월 선행지수/동행지수[F] 중 7월 외환보유고($3,112.33b) 7월 무역수지($46.42b) 7월 수출/수입(0.5%/2.7%, YoY) 독 6월 무역수지/경상수지 6월 산업생산(7.8% MoM/-19.3% YoY) 미 7월 실업률(11.1%)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4800K) 7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4767K)	8
9	10 중 7월 CPI/PPI(2.5%/-3.0%, YoY) 7월 외국인 직접투자(7.1%)	11 유 8월 ZEW 서베이 예상(59.6) 미 7월 PPI(-0.2% MoM/-0.8% YoY)	12 한 7월 실업률(4.3%) 일 7월 공작기계 수주[P](-32.1%) 유 6월 산업생산(12.4% MoM, -20.9% YoY) 미 7월 CPI(0.6% MoM/0.6% YoY)	13 한 7월 통화공급 전월비 일 7월 PPI(0.6% MoM/-1.6% YoY) 독 7월 CPI[F] 미 7월 월간 재정수지($-864.1b) 7월 수출/수입물가(1.4%/1.4%, MoM) 7월 수출/수입물가(-4.4%/-3.8%, YoY)	14 한 7월 수출물가지수(0.3% MoM,-6.0% YoY) 7월 수입물가지수(2.5% MoM,-7.3% YoY) 중 7월 광공업생산(4.8%, YoY) 7월 소매판매(-1.8%, YoY) 미 6월 기업재고(-2.3%) 미 7월 설비가동률(68.6%), 광공업생산(5.4%)	15
16	17 일 6월 설비가동률(-11.6% MoM) 6월 광공업생산[F] 2Q GDP 유 6월 건설생산(27.9% MoM, -11.9% YoY)	18 미 7월 주택착공건수(17.3% MoM) 7월 건축허가(2.1% MoM)	19 일 7월 수출/수입(-26.2%/-14.4%, YoY) 7월 무역수지(-¥268.8b) 6월 핵심기계수주(1.7% MoM/-16.3% YoY) 유 7월 CPI[F](0.3%, YoY) FOMC 의사록 공개	20 독 7월 PPI(0.0% MoM, -1.8% YoY) 미 8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4.1)	21 한 7월 PPI(-0.9%,YoY) 8월 수출입 20일 전년 대비 일 7월 CPI(0.1%) 유 8월 Markit PMI 종합, 제조업, 서비스[P] 8월 소비자기대지수[A] 독 8월 Markit 서비스/종합PMI[P] 미 7월 기존 주택매매(20.7% MoM) 8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22
23/30	24/31 〈24〉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4.11) 〈31〉 한 7월 광공업생산 7월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변동 일 7월 소매판매 중 8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 PMI 미 8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25 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84.2) 독 8월 IFO 기업환경지수(90.5) 미 7월 신규주택매매(13.8% MoM) 8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0)	26 한 9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일 7월 PPI 서비스(0.8% YoY)	27 韓금통위, 美 잭슨홀 미팅 한 BOK 기준금리(0.50%) 중 7월 산업생산(11.5%) 미 2Q GDP 연간화(QoQ) 2Q 개인소비 2Q GDP 물가지수	28 유 8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독 9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0.3) 미 8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3)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도/소매재고	29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 ( )안은 이전치

Hana Market Monthly

하나은행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